

## 아랍 활동가 발언

예멘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쟁 아니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폭탄 때문에 집이 파괴되고 가족들도 죽습니다.  
예멘 사람들은 한국이 안전한 나라고 민주적인 나라여서 선택했습니다.  
한국과 예멘은 분리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예멘에서 가스를 수입했습니다.  
예멘이 전쟁이 나서 한국이 가스문제로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제주도에 있는 예멘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언제든 어디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준 나라와 도와주지 않은 나라가 역사에 남습니다.  
한국도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도와준 나라와 도와주지 않은 나라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아랍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